

어느 쪽이 더 이익일까요?



여러분이 평소에 잘 가는 마트에 가게 되었습니다. 마트에 가기 전에 커피를 살 계획을 세우고 가게 되었습니다. 마침 마트 측에서 특매로 두 가지 커피를 판매하고 있었습니다. 여러분은 어느 커피를 구입하겠습니까? 여러분이 왜 그 커피를 선택하게 되었는지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

수강생들의 다양한 반응

- 수강생 A: 저는 커피 B를 구입하겠습니다. 왜냐하면 이번 야유회에서 사용할 커피이기 때문에 야유회 가서 다 사용하고 남으면 좀 그러니까...음 그러니까... 야유회에 참여할 인원을 생각해 보면 작은 병의 것을 사는 게 이익이라고 생각합니다.
- 수강생 B: 계산하는 것이 머리 아프기 때문에 돈이 7000원 밖에 없으면 작은 병의 커피를 사고 10000원 이상이 있으면 큰 병의 커피를 구입하겠습니다.

수강생들의 다양한 반응

- 수강생 C: 이전에 언니와 함께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...큰 병의 커피를 샀더니만 다 못먹고 버리게 되어서 그 경험을 살려서 작은 병의 커피 B를 구입할 겁니다.
- 수강생 D: 슈퍼에는 차로 왔고 지갑에는 충분히 돈이 있으니까 큰 병의 커피를 사도 괜찮겠지 생각해서 커피 A를 살 것 같습니다.
- 수강생 E: 커피를 아주 좋아하기 때문에 당연히 커피 A를 구입하는 것이 이익입니다.
- 수강생 F: 브랜드를 따져보고 만약 B커피가 내가 좋아하는 브랜드이면 당연히 B커피를 구입합니다.

■

나의 경험

- 우리 집에서 커피를 먹는 사람은 나 밖에 없다. 나를 제외한 모든 가족이 커피를 그다지 좋아하는 편이 아니고, 나 역시 인스턴트커피보다는 원두커피를 선호한다. 그리고 커피를 마시는 사람이 가족 중에서 나 혼자이고 부모님으로부터 커피를 구입하는 비용을 타서 쓰는 입장이기 때문에 내가 가장 우선순위로 생각하는 것은 당연히 가격이다.

나의 경험

- 그 다음은 맛있고, 그다지 고려하지 않는 것은 양이다. 왜냐하면 집안에서 커피를 마시는 사람은 나 혼자이므로 일단 한 번 사고 나면 굉장히 오랫동안 먹을 수 있다. 학교에서 귀가하여 저녁에 한 번 끓여 먹는 것에 그치기 때문에 양이 많으면 반드시 다 먹지 못하고 버리게 되기 때문이다. 제시된 상황에서는 단순히 커피라고 했기 때문에 나는 그것이 내가 좋아하는 원두커피라고 가정을 했다. 따라서 내가 두 개 중에서 양이 더 적고, 가격도 싼 커피B를 선택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다.

만약 이런 문제가 학교에서 나왔다고 하면?

- 나의 질문에 학생들은 이구동성으로 「커피 A」라고 답하였다.
- 그리고 그 이유를 물어볼 틈도 없이 한 명의 학습자가 계산기를 꺼내 들고 “ $8980/260=34.54$ 원 그리고 $6980/180=38.78$ 원이기 때문에 A커피가 이익입니다.”라고 대답하였다.

나의 또 다른 질문

- “교실에서 배운 대로 정확한 수학적 계산에 따라 이익이 되는 커피A를 사서 집으로 돌아갔다면 나는 교실에서 인정하는 정답을 맞힌 연산능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가족들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인가?”
- 여러분의 대답은?

나의 또 다른 질문에 대한 어느 수 강생의 대답

- “교수님 댁에서 커피 마시는 분이 교수님 밖에 안 계신데 만약에 학교수학을 사용해서 계산을 해서 커피 A를 사가지고 집에 돌아가셨다면 연산능력이 뛰어난 사람으로 인정받기는커녕 그 많은 커피를 누가 먹을 거냐고? 그리고 유통기한을 따져보더라도 커피 B를 사는 것이 더 이익이었다고 부모님한테 핀잔을 들었을 것 같은데요.”라고 말하자 교실에서는 여기저기 웃음이 터져 나왔다.
- 여기서 우리 무엇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?